



기획 ▶ 5면

‘꿈의 방송기술인’ 취업시장 현주소

방송 기술 ▶ 6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가다

오피니언 ▶ 7면

[칼럼] 방송의 이념과 원칙, 통합방송법 제정의 핵심

지상파 UHD 표준, 이번엔 청신호?

TTA, 지상파 UHD 송수신정합표준 재상정 ... 10월 13일 결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지상파 UHD 송수신정합표준(안)’을 재상정해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주간 서면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로 지상파 UHD 상용화에 파란불이 켜질 수 있을지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여전히 이동통신 3사가 TTA 총회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TTA 총회의 의결권은 회비납부순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력을 지니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TTA 총회에서 거론된 안건을 살펴보면, 통신사들에게 유리한 안건은 빠르게 결정됐고 불리한 안건은 거부권 행사로 더디게 진행됐다.

지난 7월 2일 TTA 총회에 상정된 34개 표준 후보(안) 중 유일하게 부결된 지상파 UHD 송수신정합표준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표준은 기술적인 결함만 없으면 통과되는 게 관례적이다. 하지만 지상파 UHD 표준은 표결에도 부치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부결됐다.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최신 기술이 반영돼 있지 않고, 국제 표준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표준을 정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561표 중 366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와 계열사 271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해 표결 없이 부결처리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ICT 표준을 정하는 TTA의 구성원 절대 다수가 이동통신사로 구성된 것을 두고 TTA 구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 나왔다. 무료 보편의 서비스 영역을 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IPTV라는 방송의 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가 경쟁사의 표준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상정 역시 지상파 방송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TTA 총회 구성을 비롯한 환경 전반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똑같은 결정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상파 UHD 상용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에펠탑에서 지상파 UHD 실험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방송 규제 기관인 방송위원회(CSA)가 700MHz 대역 주파



국제방송센터(IBC) 방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월 1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송도컨벤시아 국제방송센터(IBC)를 방문해 아시아안게임 방송중계 시설을 둘러보며 방송중계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수를 UHD 방송용으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공영방송사인 BR도 방송 연구 기관인 IRT와 함께 DVB-T2와 HEVC 기술을 이용한 실험 방송을 지난 7월 10일부터 뮌헨에서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프랑스가 CSA의 보고서를 채택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700MHz 대역 주파수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해 UHD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지상파 UHD 상용화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에서는 지상파 UHD 표준안 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통신 3사가 TTA 결정을 좌우하는 상황인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번 총회에서 지상파 UHD 표준이 또 다시 부결될 경우 차선을 선택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TTA 총회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통합방송법, 국감 ‘뜨거운 감자’ 되나

역대 최대 국정감사가 돌입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0월 13일 미래부에 이어 14일 방통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통합방송법의 논의 과정 및 경과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가 통합방송법이 아닌 통합유료방송법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운영 중인 일명 통합방송법 연구반은 표면적으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규제 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료 방송 중심의 기계적인 규제 완화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주축로 열린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 규제 완화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지적됐다. 박상호 공공성TF 연구위원은 “유료 방송 사업자만 규제 완화의 혜택

가 제공된다면 방송 생태계에서 공적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방송 철학을 세우고, 방송 철학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역시 유료 방송 중심의 규제 완화가 지상파방송 등 공적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료 방송 중심의 과도한 규제 완화는 결국 돈을 낸 만큼 이용자 복지를 가져가라는 식으로 흐를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며 “그동안 논의돼온 공적 서비스 조항 등을 통합방송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이 모든 논의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방송법은 오는 11월 중 법안 작업 완료,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완료를 한 달여 앞둔 지금까지도 공개된 내용이 없다.

이에 대해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체계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도입돼 제대로된 통합방송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디지털 방송기술의 길잡이

BROADCASTING & TECHNOLOGY

당신을 귀중한 회원으로 모십니다

월간 방송과기술 구독 회원 혜택

- ‘방송과기술’ 정기 구독(연 12권)
- 각종 기술세미나 및 기술도서 안내문 발송
- KOB(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 무료 입장권 및 안내 자료 발송
- 기타 본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

회원 가입방법

- 1년간 8만원 / 6개월 5만원
- 계좌 : 씨티은행 187-00275-245 (주)월간 방송과기술(예금주)
- 전화 : 02-3219-5635 / 팩스 : 02-2647-6813
- 위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후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

KBS-KAIST 개발 UHD 영상압축기술, 국제표준특허 등록

국내에서 개발된 차세대 초고화질(UHD) 영상 압축 기술이 국제표준특허로 등록됐다.

KAIST는 전기 전자공학과 김문철(47) 교수가 개발한 영상 압축 기술(HEVC, High Efficiency Video Coding)의 표준특허로 등록됐다고 10월 1일 밝혔다.

김 교수가 KBS와 공동 개발한 이 기술은 기업이나 연구소가 아닌 대학에서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해 표준특허(기술표준을 적용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로 인정받은 국내 첫 사례다.

HEVC(h.265)는 표준 디지털 영상 파일 포맷인 MPEG(동영상), JPEG(정지 영상) 등 압축된 영상을 다시 압축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Full HD에 널리 쓰고 있는 H.264/AVC 보다 데이터 압축 효율이 두 배 정도 우수하다. 같은 수준의 영상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용량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데이터 트래픽 폭증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

특히 HD TV 이후 차세대 방송으로 여겨지고 있는 UHD의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영상 파일이 점점 대용량화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HEVC 기술이 앞으로 차세대 방송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AIST 측은 “HEVC 관련 시장이 2016년까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세계 시장은 연간 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에 등록된 표준특허로 향후 최소 100억 원의 특허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KAIST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애플, 지멘스, NEC 등과 함께 HEVC 표준특허 풀 창립멤버로 가입, 글로벌 톱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학교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며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 생산성을 크게 높임으로써 그동안 대학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창조경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중간 광고로 인한 시청자 복지 문제, 수익금으로 해결해야”

지상파방송의 중간 광고 시 우려되고 있는 시청자 복지 문제를 중간 광고 수익금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광고의 사회적 위상 제고’ 세미나에서 홍분기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광고의 사회적 역할 제고와 중간 광고 수익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유료 방송과 대비되는 비대칭 규제인 중간 광고 규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시청자 복지의 근간인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중간 광고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시청자 복지의 문제는 중간 광고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 광고 반대론자들은 중간 광고 허용이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진시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시청자 복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청률 경쟁이 과열되면 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시청 흐름 중단으로 인해 결국 ‘시청자 복지’라는 방송의 공익적 지향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비록 중간 광고 도입 초기에 시청 만족도가 낮아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복지가 향상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간 광고를 통해 발생

하는 추가 수익을 시청자 복지의 중요한 축인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재투자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 간 자율 규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간 광고 허용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도입돼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소수자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교육적·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편성 쿼터제, 시청률은 낮지만 공중에게 필요한 공익적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작·유통 시스템 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홍 교수는 주파수 전파 자원 사용 기준에 따른 지상파 방송 초과수익의 환수 과정, 즉 현재의 방송발전기금 형식 등을 이용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중간 광고 수익을 공익방송체제 강화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중간 광고 수익을 각 방송사 주파수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 차등적으로 방송발전기금 형태로 징수하고 이를 방송의 공익적 운영에 활용하는 안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모인 기금을 공익적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공익방송사를 보조하거나 지역 프로그램과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지원한다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가치 향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국내 첨단방송기술 유럽서 ‘호응’

3DTV 방송기술·지상파 클라우드 전송기술 등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최신 방송 관련 ICT 기술들이 유럽에 소개돼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전시센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국제방송박람회인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와 독일 베를린 박람회장에서 개최된 전자가전 박람회인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에 최신 기술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기술은 △DVB 고정·이동 방송 융합형 초고화질 3DTV 방송 기술 △지상파 클라우드 전송 기술 △웹 서비스 가상화 등 총 5개 기술로, 세계 시장이 주목하는 기술들이다. ETRI는 이번 전시회를 해외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적극 홍보하는 해외 마케팅 기회로 삼았다. ▶4면에 계속

IT공룡기업 ‘다음카카오’ 공식 출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것”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법인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으로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다음카카오는 10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5월 합병 발표 이후 4개월 동안 오픈 및 수평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해 문화적, 조직적, 법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최세훈, 이석우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4개월간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두 대표는 다음카카오의 합병 시너지를 이끌어낼 최적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음카카오의 사업비전과 CI(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가 공개됐다.

최세훈, 이석우 공동대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성공적인 합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연결, 새로운 세상(Connect Everything)’이라는 비전 아래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리더로서 다음카카오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세훈 공동대표는 “다음카카오는 지금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다음카카오가 만들어갈 혁신이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고, 이석우 공동대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 정보, 사물, 프로세스 등 아직 연결되지 않은 많은 영역이 존재한다”며 “다음카카오는 우리 앞에 도래한 이 연결의 세상에서 사람과 사물을 아우르는 새로운 소통 방식, 나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미션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향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정보’,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람과 사물’ 등 일상 생활을 둘러싼 모든 것을 연결하며, 실시간 상호 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장의 반응은 꽤 긍정적이다. 다음의 시가총액 약 2조 2,250억 원에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더하면 다음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그동안 네이버가 주도해 온 포털과 모바일

시장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다음의 경우 네이버에서 비해 모바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었는데 모바일 영역에서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카카오와 합병한다면 다음은 그동안 겪어온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고, 모바일 메신저 업계 1위인 카카오 역시 게임 외에 별다른 수익 사업을 펼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다른 (긍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커다란 지각변동을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특히 라인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카카오가 다음의 콘텐츠만으로 경쟁력 확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다음카카오의 성장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조직 개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음카카오는 18개 팀의 스태프 조직을 빠르게 하는 다음카카오 인사 조직 개편 잠정안을 마련했다. 이 18개 팀 가운데 카카오 출신이 13개 팀의 팀장을 맡기로 했고, 다음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뉴스, 검색 등 5개 팀장급만 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카카오의 새 보급자라는 판교로 결정됐다. 다음의 제주도 본사 인원을 제외한 카카오와 한남동 다음 근무 인원 등 2,700여 명이 근무할 건물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 baek@kobeta.com

“방송, 클라우드 접목한 새 비즈니스 모델 창출해야”



IT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방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방송 산업계에서의 클라우드 트렌드, 기술 적용 방안 및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9월 29일 서울 상암동 DMC산협력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제5회 클라우드 데이-방송·콘텐츠 분야의 클라우드 적용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방송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클라우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먼저 국내외 클라우드 기반 방송 서비스 동향과 방송사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병희 KBS 팀장은 “방송사가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려면 방송사의 서비스 모델 자체가 클라우드에 맞는 형태로 개발돼야 한다”며 “시청자에게 사용시간이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소유할 수 있는 방송으로서 재미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라이브·VOD·M·VOD 서비스의 경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연계하면 실시간 시청률 수집은 물론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등 소셜 기능까지도 가능해

진다. 이를 통해 시청률이 몰리는 시간대, 연령대, 디바이스 등이 파악되면 방송사로서는 해당 영역에 콘텐츠를 집중 편성함으로써 방송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는 “방송사는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형태가 아닌 데다 고객의 충성도도 낮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예산이 적은 게 현실이지만 변화하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 방송장비나 제작인력 이외에 신규 미디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력이나 투자 문제, 고객의 충성도를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실제 클라우드를 접목했던 다큐멘터리 <태아>의 사례가 소개돼 주목됐다. <태아>는 방송 최초 2부작 입체영상 CD 다큐멘터리로, 3D와 합성이 50분 분량의 영상 전반에 사용됐다. 애초 막대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던 데다 제작 후반으로 갈수록 데이터량이 많아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중에서도 클라우딩 컴퓨터 렌더팜을 활용해 3개월 남짓 기간 동안 무사히 작업을 마쳤다.

직접 제작에 참여했던 이세영 KBS 미디어팀장은 “1년 이상의 큰 프로젝트는 렌더팜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외국에 비해

제작비가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사의 빠듯한 예산 안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가능하다면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별해 업체가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영세 업체에도 기회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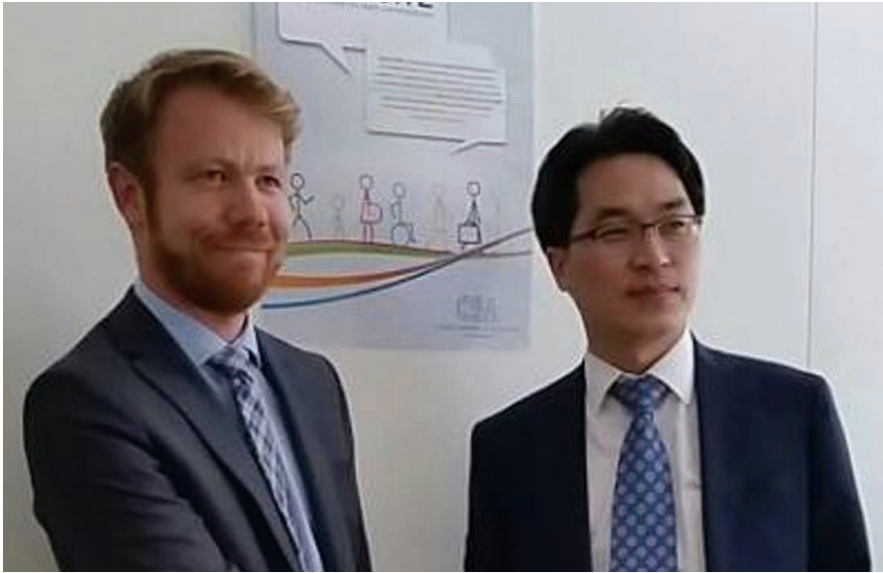
이날 ‘클라우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술 방송 적용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던 김성국 연세대학교 교수 역시 방송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부재 문제를 꼬집었다. 현재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경원 개입 조항과 보안 문제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아마존TV, 구글TV, 애플TV 등이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TV 기능을 지원하지도 않고, 공공파를 대신할 수도 없다”면서 “방송사의 주요 권한인 편성권과 송출권을 이들에게 넘기지 않으려면 우선 미래부, 통신위원회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IPTV 등에 대한 관리 주제를 일원화해 국경을 넘나드는 방송산업의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참가자들은 제작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방송 콘텐츠의 라이프사이클 전체가 클라우드와 접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했다. 한 전문가는 “방송·콘텐츠와 클라우드를 잘 접목한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그 과정을 정책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또 산업 관계자들이 어떻게 협동해 풀어낼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프랑스, UHD 경쟁서 앞서가나?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페이스북

‘700MHz 대역 주파수 UHD 방송용 활용’ 보고서 의회에 제출

초고화질(UH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1일부터 에펠탑에서 지상파 UHD 실험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최근 방송 규제 기관인 방송위원회(CSA)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재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세계 3대 방송 장비 전시회인 'IBC 2014'에 참석한 뒤 프랑스 CSA 기술총괄책임자(Director of technologies) 프랭크 르베글르(Frank Lebeugle) 국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CSA

는 최근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 등 지상파 신규 서비스용으로 재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프랑스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방송으로 활용하는 유럽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톨랑가로즈’ 프랑스 오픈 테니스 경기를 지상파 실험 방송으로 진행했고, 7월부터는 프랑스 지상파 송출 사업자인 ‘TDF’가 유럽 음악 유료 방송 전문 채널인 ‘NRJ’와 함께 에펠탑에서 DVB-T2와 HEVC 조합으로 지상파 UHD 실험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TDF는 NRJ가 보유한 무직비디오 4K 영상과 기존 HD로 제작된 음악 영상도 업스케일링해 송출 중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공영방송사인

BR도 방송 연구 기관인 IRT와 함께 DVB-T2와 HEVC 기술을 이용한 실험 방송을 지난 7월 10일부터 뮌헨에서 실시 중이다. 이상진 SBS 정책팀 박사는 〈방송과기술〉을 통해 “독일은 뮌헨 두 지역에 DVB-T2 송신 사이트를 각각 설치해 1개 주파수(채널 43번, 650MHz)로 단일주파수망 방식인 SFN을 구성해 방송을 실시 중이며, 고정 수신뿐만 아니라 이동 수신 테스트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국내 주파수 정책에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리나라 역시 차세대 방송인 UHD 경쟁력 확보를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유료 방송 중심의 UHD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통신 업계의 반대로 지상파 UHD 방송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몇 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하지만 UHD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콘텐츠의 80% 이상을 지상파 방송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상파방송을 배제하고는 UHD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 중심의 UHD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BS 관계자는 “프랑스가 CSA의 보고서를 채택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700MHz 대역 주파수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해 UHD 시장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백선하 baek@kobeta.com

정부 주도 ‘한국형 플랫폼’ 실효성? ‘글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상파, 케이블, IPTV, 포털, 1인 미디어 등의 콘텐츠를 아우르는 정부 주도 공영 플랫폼의 구상을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점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유통 창구를 만들어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9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최로 열린 ‘국내 방송 산업 글로벌 유통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발제를 맡은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한류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정부 주도 공영 플랫폼을 제안했다. 심 교수가 제안한 ‘한국형 방송 플랫폼(가칭, 이하 KBP)’은 △콘텐츠 큐레이션 △K 컬렉션(글로벌 전문 프로덕션) △플랫폼 마케팅 △채널 서비스 △저작권 관리 △영업망 확보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KBP를 통해 기존 단품, 위탁판매 중심이었던 콘텐츠 유통을 컬렉션 도매 공동 배급으로 바꾸고, 팔고 나면 끝이었던 수익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 교수가 제안한 KBP는 현재 연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미래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 공식 론칭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KBP 론칭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이미 예산안 편성도 마친 상태”라며 “콘텐츠 해외 진출과 연계된 부분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BP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론칭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문행 수원대 교수는 “해외 시장 개척이나 성공적 진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도는 좋으나 국내 유통 시장 환경을 감안해 볼 때 온·오프라인을 포괄한 모델이라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혁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 이사로 “해외 시장 진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미 기존 유통망이 있어 KBP 진입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한 뒤 “(콘텐츠를 둘러싼) 지상파, 케이블, IPTV 그 외의 유통업자 등 지금도 각 이해당사자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 역시 “기술적인 플랫폼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넣고,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하고, 꼭 필요한데 이러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뒤 KBP가 현실화됐을 때의 효율성 부분에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문연 디즈니채널코리아 대표는 “과거 가전제품 수출을 제조회사가 아니라 종합상사가 대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됐다면 오늘날 삼성과 LG는 아마도 없었을 것”이라며 “체계적인 유통 구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유통 전문가와 유통 전문 기업의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SBS ‘별그대’ 힘입어 1분기 상승, JTBC ‘상승세’ 지속…2분기 1위

1·2분기 시청자 만족도, ‘KBS1 1위’

시청자가 가장 만족하는 지상파 채널은 ‘KBS1’, 종편PP는 ‘채널A’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KI: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ndex) 조사’에서 2014년 상반기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4개 채널 중 KBS1이 1·2분기 모두 1위를 차지했다. KBS1은 2012년 이후 지상파 4개 채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KBS2는 1분기 3위, 2분기 2위를 기록했다. SBS는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인기로 높은 평가를 받아 1분기에 2위를 차지했으나 2분기에는 다시 3위를 기록했으며, 지상파 최하위인 MBC는 조사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2012년 평가를 시작한 종편PP는 조사 시작 이래로 채널A가 꾸준히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JTBC가 올해 2분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KI 지수’의 보조적 지표로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는 방송 채널 평가지수 조사는 각 채널별 △흥미성 △다양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 △신뢰성 △유익성의 7개 영역에 대해 KI지수 조사기간 동안 매주 1회, 분기별 총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2분기의 경우 지상파 4개 채널 중 SBS가, 종편PP 채널 중에서는 JTBC가 흥미성, 다양성, 창의성, 공정성 등 7개 전 영역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실시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

조사’는 전국 13 ~ 69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채널별 프로그램 각각의 만족도 지수(SI)와 질평가 지수(QI)를 합산해 결과를 산출하며, 분기별 6주간 약 1만 4,400여 명을 대상으로 1년에 총 4차례 진행된다. 2005년 지상파 4개 채널(KBS1·2, MBC, SBS)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2년부터 종편 PP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을 추가해 총 8개 채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 1분기분은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2분기분은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두 차례 조사·평가가 진행됐다.

KISDI 관계자는 “과도한 시청률 경쟁이 난립하고 있는 다채널 다채널 환경에서 시청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가 시청자 중심의 방송 환경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재욱 jokwak@naver.com

KISDI, ITU에서 한국 ICT 우수 사례 소개



식 박사, 지경용 박사, 최미란 박사이고, 부랴포처는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팀장, 조정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박사다.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 KISDI 서보현 박사 등 6인의 대표단은 “이번 ITU-D SG는 2014년 2018년 연구회의 첫 연차회의로, 이 기간 동안 ICT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ICT 애플리케이션·사이버 보안·재난 통신과 기후 변화 대응’ 주제 아래 18건의 연구과제가 수행될 예정”이라며 “효율적 수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라포처와 부랴포처는 연구 주제에 관한 전문성을 근거로 선출되며 연구기간 중 연구의 조정과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라포처 그룹 진출을 통해 향후 ITU-D SG 활동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ICT 강국인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가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별 jnb1001@kobeta.com

한국 방송 콘텐츠 해외 경쟁력 입증했다

한국 콘텐츠기업들이 지난 9월 초 열린 ‘국제방송 영상경연대회(Broadcast Worldwide, 이하 BCWW 2014)’에서 전년 대비 27% 증가한 4,556만 달러(한화 473억 4,000만 원)의 계약 실적을 올리면서 해외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은 세계 50개국, 183개 전시사, 2,013명의 바이어들이 참가한 행사 기간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바이어 수도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의 참관객도 19.5% 증가한 5,8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수출 성과를 살펴보면, KBS미디어는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텐센트와 KBS 2015년 신작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내 전송권을 1,0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약 1,500시간 분량의 2015년도 KBS 신작 드라마와 예능,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텐센트의 자체 인터넷 플랫폼인 QQ를 통해 전송되게 된다. 텐센트는 이미 〈조선총잡이〉, 〈하이스쿨 러브온〉 등 KBS 드라마를 QQ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총잡이〉는 누적 시청 3억 뷰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CJ E&M은 현재 상황리에 방영되고 있는 케이블 드라마 〈삼총사〉, 〈마이스크

릿호텔〉을 포함해 〈연애 말고 결혼〉 등 주요 드라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JTBC는 〈필화〉, 〈청담동 살아요〉와 최근 방영하고 있는 〈유나의 거리〉 등의 드라마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방송콘텐츠에 대한 해외 수출도 늘었다. MBC의 〈아빠 어디가〉를 비롯해 JTBC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에브리쇼의 여행 다큐 〈컬러 오브 시티〉도 수출됐다.

벤엘글로벌미디어컨텐츠는 올해 초 스페인 제작사인 잔스카 프로덕션(ZansKar) 및 국내 케이블 방송

국 마운틴TV(Mountain TV)와 체결한 공동제작 MOU를 바탕으로 3부작 어드벤처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12월 제작 완료될 예정으로 스페인의 ‘TVE&Canal Plus’ 등 해외 여러 방송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시너지미디어는 〈월터볼츠〉, 〈에일런몽키즈〉를 일본, 필리핀 등에 수출했으며, 픽스 트렌드는 〈장금이의 꿈〉, 〈뛰뛰빵빵 구조대〉를 대만, 인도 등에 판매해 애니메이션도 수출에 속도를 냈다. 이 같은 성과는 한류의 효과 수출 상품인 드라마를 중심으로 구매했던 전략 시장의 핵심 바이어를 섭외하고 신규 시장 바이어 발굴 확대를 위한 비즈매칭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KOCCA 측 분석이다.

▶4면에 계속

곽재욱 jokwak@naver.com

방통위, 코바코 사장에 광성문 전 의원 임명



최성준 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 9월 26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광성문 전 의원을 공식 임명했다. 광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17년 9월 25일까지다. 광 신임 사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MBC 자회사 사장을 겸임하던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자유선진당으로 옮겨 사무총장을 지낸바 있다.

하지만 광 신임 사장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방송 광고에 별다른 전문성도 없는 그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 바쳤다는 이유로 코바코 사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맥주병 난동' 등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에 이어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의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폭로도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방송 광고 시장을 망칠뿐 아니라 나아가 방송계를 더 추락하게 만들 코바코 낙하산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광 신임 사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충직한 '친박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공직에도 적절치 않은 부적격 인물을 언론계 주요 직책에 임명한 것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흠집투성이의 인격 파탄자이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의리도 정의도 팔아 넘기는 정보기관의 프락치 혐의자를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이 땅의 민주인사들에 대한 죄악이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짓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코바코지부도 광 신임 사장 소식에 성명을 내고 "조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적격 낙하산 인사, 도덕적 결함이 있는 인물이 코바코의 수장이 되서는 안 된다"며 내정 철회를 주장한 바 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LG CNS, 2조 원대 재난망 설계한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도 속도낼 것”

LG CNS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기술정보전략계획(ISP) 사업자로 선정됐다. LG CNS가 재난망 사업 입찰에 참여한 SK C&C, KT를 제치고 최소 2조 원대의 전체 재난망 설계도를 그리게 된 것이다.

조달청은 LG CNS 컨소시엄, SK C&C 컨소시엄, KT 컨소시엄을 상대로 청문 심사를 진행한 결과 LG CNS가 평가의 90%를 차지하는 기술성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해 ISP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0월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10월 13일까지 LG CNS와 우선 협상을 진행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20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ISP 1차 결과를 도출하고, 내년 3월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원도 평창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ISP 예산 규모는 17억 원으로 크지는 않다. 하지만 2조 원대인 재난망 구축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인 만큼 재난망 본사업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난망 주파수가 배정돼야

ISP 설계가 가능하다”며 “주파수 심의위원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주파수 할당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재난망 할당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700MHz 대역 주파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 3사도 700MHz 주파수 일부를 재난망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을 비롯한 일각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의 재난망 활용에 의문을 표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재난망 주파수로 사용 가능한 대역은 700MHz 대역 외에 1.8GHz, 2.6GHz 대역 등이 있다. 다른 주파수 대역도 존재하는데 왜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700MHz 대역 주파수가 갑자기 등장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재난망 ISP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15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6~2017년 재난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10월 광고시장 ‘맑음’

신제품 출시 및 인천아시안게임 등 요인

10월 광고시장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국내 광고시장의 경기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조사·발표하고 있는 '광고경기 예측지수(KAI:Korea Advertising Index)'를 보면 10월 예측지수는 113.5로, 9월 122.8에 이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는 9월에 이어 10월이 연중 광고성수기에 해당하는

메다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최근 소비심리 회복 추세에 따른 광고주들의 기대심리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TV 107.1, 케이블TV 107.0, 라디오 101.1, 신문 107.9, 인터넷 104.6으로 나타나 모든 매체의 광고비가 전월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식품, 음료 및 기초식품, 화장품 및 보건용품, 출판 및 교육, 패션,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가정용품, 건설·건설 및 부동산, 증권 및 자산운용, 서비스,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광고 등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제약 및 의료, 유통, 금융 및 보험,

여행 및 레저 등은 감소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외 업종은 전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KAI는 주요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웹조사 패널을 구축해 매월 정기적으로 다음달 주요 광고매체별 광고비 증감여부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해당 업종의 광고주 중 광고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숫자가 많으면 100이 넘고, 그 반대면 100 미만인 된다. 또한 종합지수는 각 매체별 지수를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한 값이 아니며 매체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총광고비의 증감여부를 물어본 것이다.

곽재욱 jokwak@naver.com

2면에 이어▶ 먼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IBC 2014'에서는 △DVB 고정·이동방송 융합형 초고화질 3DTV 방송서비스 △차세대 방송시스템을 위한 지상파 클라우드 전송기술을 소개했다.

독일 프라운호퍼 HHI와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현지 언론에 소개되는 등 호응을 얻었으며, 데이비드 우드(David Wood) DVB UHD·3DTV 표준화그룹 의장이 직접 찾아와 표준화 논의를 권유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상파 클라우드 전송기술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술 대비 크게 우수하게 평가받았다고 ETRI는 밝혔다. ETRI의 기술은 UHD방송과 이동HD방송을 한 채널에서 동시에 서비스 가능케 하기 때문에 타 기술 대비 주파수 이용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은 현재 ATSC(미국디지털방송표준위원회) 3.0 표준화 그룹에서 논의 중이며, 전시회 현장에서는 ATSC 이사회 의장 글렌 라이트마이어(Glenn Reitmeier), ATSC 3.0 표준화그룹 의장 리치 처녹(Rich Chernock), 유럽 DVB T-M-T 의장인 프랭크 허먼(Frank Hermann)가 부스를 찾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 2014에는 △텔레스크린 웹 서비스 가상화 기술 △오픈 스크린 스마트 허브 기술 △3D UI 앱 가상화 플랫폼 기술 등

이 소개됐다.

ETRI는 여기서 차세대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 서비스로서, 저 사양 단말을 이용해 클라우드 서버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를 가상화해 전달하는 기술을 전시함으로써 향후 유럽시장을 공략할 한국의 디지털 사이니지 업체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ETRI의 기술은 유럽의 좁은 실내공간과 저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유럽시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 사우디 항공사, ICT 솔루션 회사 등 관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TRI는 이번 세계 유명 전시회 참여를 통해 기술홍보는 물론 해외 우수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남 ETRI 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세계 속 대한민국의 높은 ICT 기술 수준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ICT 강국 코리아를 견인할 수 있는 성과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IBC 2014'에서는 최근 700MHz 대역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재할당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프랑스 방송 관계자들과 동일한 논의가 진행 중인 국내 방송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기자회견 개최



YTN 해직 사태 6년을 맞이하는 10월 6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해직 언론인 복직, 언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08년 10월 6일 YTN 인사위원회가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조승호, 정유신, 현덕수 기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이후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은 각종 언론 지수가 증명하듯 언론 탄압, 언론 통제 국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해직자들의 복직과 언론 정상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해직 언론인 복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 보장이 헌법의 핵심가치임을 확인하고, 법원이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기조 아래에선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mjkang@kobeta.com

국정감사 시작…방송통신계 이슈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미뤄졌던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단통법의 핵심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

정이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중 유일하게 분리공시를 반대한 것과 관련해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이미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기획재정부를 움직여 분리공시 도입을 무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석재 전 KT 회장과 김일영 KT넷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 전 회장은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인 인공위성 2기를 정부 승인 없이 헐값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40억 4,000만 원,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 5억 3,000만 원 등 총 45억 7,000만 원을 받고 홍콩의

위성 서비스 업체인 ABS에 위성을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방식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지훈 안전행정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기획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기술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계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류호길 MBN 상무이사 겸 기획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일었던 종편 승인 심사 및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매년 재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도 또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광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은 옛 중앙정보부 프락치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평가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21일과 22일에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21일에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코바코, MBC가 그 대상이고, 22일에는 KBS와 EBS의 국감이 이어진다.

백선하 baek@kobeta.com

‘꿈의 방송기술인’ 취업시장 현주소

“당신은 인문학적 소양이 있습니까?”

신규채용 규모 적어…방송사 ‘인력난’ · 취업준비생 ‘취업난’
지상파 3사, 천편일률 ‘주입식 교육’ 거부…시사 · 논술 확대
취업준비생, 전공 공부로 취업문 못 뚫어…방법 전환 필요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하반기 공채 시즌이 돌아왔다. 요즘 대부분의 방송사가 비정기 공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 전 SBS에 이어 곧 KBS가 공채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취업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취업준비생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방송기술인 공채 경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의 방송기술인’을 꿈꾸는 취업준비생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취업문 좁아 방송사·공사 동시 겨냥

2년째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기술직 공채에 도전하고 있는 A씨는 연말로 갈수록 마음이 조급해진다. 타 직종에 한눈팔지 않고 오직 방송사에만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마지노선이 바로 올해까지이기 때문이다.

“군대 제대 이후 남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에 방송 기술직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공분야가 아니어서 ‘공학’ 자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자격증까지 다 따놓고 보니 나이가 30이 넘는다는 게 걸려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방송기술이지만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는 ‘플랜B’로 다른 공사나 공기업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A씨와 같은 방송기술직 취업준비생들이 무작정 방송사 입사만을 꿈꿀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일부 방송사들의 경우 과거 정해진 기간에 정기공채를 실시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비정기공채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까지 채용공고가 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신규채용 인원까지 대폭 줄어들어 취업문턱이 더욱 높아진 것도 한 우물을 팔 수 없게 하는 이유다.

실제로 SBS의 경우 방송기술직 인력 총원이 3년 연속 3명씩에 그치고 있고, MBC의 경우 지난해 불과 2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대규모 채용’에 해당하는 KBS가 올해 상반기 35명을 채용한 뒤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 또한 과거와 비교해 턱없이 줄어든 숫자다. <관련기사 참조>

방송기술직 취업을 돕고 있는 한 관계자는 “방송 3사 방송기술직 경쟁률은 보통 10:1로 2000:1에 육박하는 아나운서나 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합격률이 높다”면서 그러나 “방송사의 수요 자체가 적다 보니 전공자들 가운데서도 굳이 방송기술직을 고집하는 학생 수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갈수록 줄어드는 방송기술직 채용 규모는 방송기술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자격증 취득 경향에도 영향을 미친다. 1차 지망이 방송사라 하더라도 2차로 공사나 통신사 취업에 대비해 입사지원시 양쪽 모두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방송·통신 분야 4대 자격증 가운데 어렵다는 ‘정보통신기사’를 제외하고 ‘정보처리기사’는 타 공사, ‘전기기사’는 통신사에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필기·면접, 시험경향이 달라졌다

일반적으로 방송기술직 취업준비생들 중에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집중돼 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방송기술직 취업 준비에 들어가면 보통 ‘전기공학’, ‘전자공학’, ‘방송공학’, ‘전산공학’, ‘통신공학’ 등 방송 관련 세부 커리큘럼을 공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학원 수강 없이 스스로 공

부하기 난감한 대목이 ‘방송공학’이다.

수개월 혼자서 공부하다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직 취업 전문 학원에 등록한 B씨는 “방송공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솔직히 인터넷을 뒤지면 다량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실제 방송기술 실무를 접해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학원이 아닌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학원을 등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와는 달리 현업에 종사하는 방송기술인 중에는 학원에서의 경험이 실질적인 업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학원에서의 커리큘럼은 단지 구분을 위한 구분일 뿐 전공 공부를 통해 통신·전자·IT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춘다면 그것만으로 필기시험과 실무를 커버할 수 있다”면서 “학원을 거쳐 방송사에 입사한 직원들 중에는 과거 학원수강의 경험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방편의 의미가 컸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한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방을 뛰어넘어 최근 방송사들이 출제하는 시험경향은 과거 몇 년간 지속된 ‘공학’에서의 기술 관련 출제 일반도에서 벗어나 시사와 논술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MBC의 경우 필기시험의 40%, 올해 SBS의 경우 50% 정도가 시사·상식 관련 문제를 출제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논술이나 약술은 공학 전공자들에게는 취약한 부분으로, 학원 강의를 통해 주입식으로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다수 취업준비생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SBS 필기시험을 치른 C씨는 “예전에 공학을 공부하고 학원에서 정형화된 문제 풀이를 연습해 합격했다면 지금은 얇은 공부만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처럼 출제경향이 바뀌면서 취업준비생들도 뉴스, 신문 등을 보며 시사상식을 넓히고 글쓰기, 말하기 연습을 통해 필기와 면접에 대비하는 쪽으로 준비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정보를 찾아라”

이러한 시험경향의 변화에 대해 현지 방송기술인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각 방송사에서

는 예비 방송기술인들의 정형화된 학원 학습에만 의지하는 태도를 지양하기 위해 다각도로 출제방식을 고심해 온 게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예비 방송기술인들에게 실무와 직결된 기술적 지식 이외에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방송기술 관련 정보를 인터넷만 뒤지면 얻을 수 있지만, 진정 방송기술에 입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쉬운 방법보다는 얻고자 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기술 인력이 기술적 업무에만 치중했다면 방송국이 변화를 거듭하는 오늘날은 기술직이 오히려 미래 정책을 제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과거로 회귀해 이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옳은 변화”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현직 선배들이 예비 방송기술인들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들려주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상 현업에 몸담고 있는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사 상황이 달라지고 방송 환경도 변하면서 인력 부족이나 업무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방송기술인을 꿈꾼다면 방송이 나아갈 활로를 모색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즐거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관련기사> 부족한 방송기술인력 - 현장은 지금?

“우수한 신규인력 확대채용 절실”

방송기술직 인력 규모가 대폭 줄어든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최근 10년 사이 이명박 정부의 공채 축소 정책 비롯해 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지상파 광고 시장 침체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난’이다. 특히 KBS의 경우 과거 방송기술직 내 보수·행정 인력과 현업에 투입되는 근무 인력이 따로 있었으나, 현재는 ‘4조 3교대’의 법적 기준을 맞추다 보니 상임근 보수·행정 인력이 교대로 들어와 실질적인 행정·보수 업무 발생 시 오프 인력이 투입되는 사례가 제작 현업이나 송·중계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방송사 한 관계자는 “업무가 과중될 경우 세월호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이벤트성 사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직원들이 체감하는 노동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진다”면서 “현재는 거의 마지노선의 교대 근무 인력이 충원돼 있는 상태로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원 배치는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방송기술직 인력 축소의 한 요소였던 방송 기술의 발전이 최근에 와서는 업무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인력이 요구되는 것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다. 방송 시스템이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되면서 시스템 자체의 생산성이 높아진 반면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이 늘고 사용자 측 요구의 증가로 업무를 증대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고품질, 고음질, 데이터 제공 등의 장점을 갖는 디지털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엔지니어는 조명을 더 세밀하게 세팅해야 하고, 5.1채널 오디오 제작 및 관련 장비를 추가로 운용해야 하며, 아날로그 방송에는 없던 EPG(Electronic Program Guide)와 가상 채널 기능을 다뤄야 한다. 한마디로 관리 인력이 현저히 늘어난 셈이다.

파일 기반 시스템 역시 디지털 시대 이후 업무를 폭증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다. 수십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하는 리얼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면서 NPS(Network production system) 시스템 증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듯 최근 KBS 방송기술인협회가 전국의 협회원들로부터 현안 사항을 수렴한 결과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사 관계자는 “현재 반기체처럼 일하고 있는 방송기술인력에게 최소한의 인력 충원은 인간에 대한 예의”라면서 “방송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한 신규 인력의 확대 채용을 절실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재욱 jokwak@naver.com

ICT 올림픽, ITU 전권회의가 다가왔다

ICT 엑스포, 콘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 마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의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ITU 전권회의는 국제 주파수 분배, 정보통신 국제표준, 사이버 보안, ICT를 통한 인류발전 등 글로벌 ICT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ITU가 4년마다 개최하는 회의로, 1865년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부산에서 제19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193개 회원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단 3천여 명을 비롯해 특별행사 참가자 등 약 60만 명이 참여하는 이번 ITU 전권회의는 부산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국제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7,118억 원의 직·간접 경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ICT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는 공식 주제로 열리는 2014 ITU 전권회의에서는 10

월 20일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3주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ITU 전권회의는 ‘ICT 융합,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경제 성장 이슈(한국 의제)’, ‘국제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ICT 현안(ITU 정책 의제)’, ‘전파와 표준화 현안, 신기술 서비스 발전에 따른 이슈(ITU 기술 의제)’, ‘ITU 전략 계획(ITU 운영 의제)’ 등 4가지 의제를 놓고 진행된다.

전권회의 외에도 ICT 엑스포, 글로벌 ICT 콘퍼런스, 스마트 한류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특별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가 주최하는 ‘월드IT쇼’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 벅스코에서 진행되며, CES, MWC와 같은 글로벌 전시를 지향하는 ICT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ICT 전 분야에 걸쳐 국내외 기업의 기술과 제

품을 전시하고, 국내외 주요 기업의 신제품 발표가 이어진다.

또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시장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클라우드 엑스포’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보안, 플랫폼 등의 제품 전시와 산업 현황 및 동향 발표 등이 이어진다.

특히 ICT 관련 국내 외 유명 석학 및 CEO 등을 초청해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ICT 미래 전망과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는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부산 벅스코에서 개최되며, 3C(Creative Government, Creative Enterprise, Creative User)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백선하 baek@kobeta.com



인천아시안게임, ‘세계 최초’ 지상파 UHD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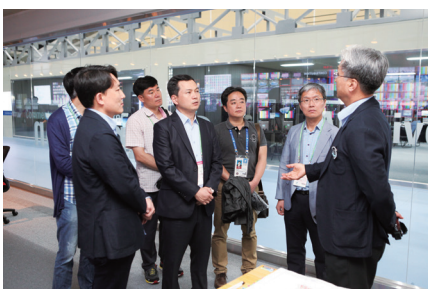
아시아 미래를 만나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아시아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국제방송센터(IBC)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주목할 곳은 MMC의 국제방송센터(IBC)다. 특히 이번에는 개별 장비 위주로 구성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VSM(Virtual Studio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장비를 하나로 모아 도식화된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철도 공사에서 전체 지하철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듯이 모든 장비의 운영을 한곳에서 확인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VSM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스케줄러 기능이다. 스케줄러 기능은 방송국의 자동송출시스템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각 경기장에서 약 70여 개의 국제 신호들이 들어오는데 이 신호들을 받아서 원하는 국가와 방송사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것이다.



CSC(commentary switching center) 디지털화된 CSC(commentary switching center)도 주목할 만하다. 아날로그 신호들이 들어오던 이전에는 마치 전화국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디지털로 바뀌면서 모든 장비가 소형화됐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장비 세팅을 위해 운영자들이 각 경기장에 무조건 배치됐어야 했는데 디지털로 바뀌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컨트롤이 가능해졌다.



KOBETA, IBC방문 이후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 회장과 김일양 MBC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이성의 SBS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등은 인천아시안게임 중계방송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UHD 신호 송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 UHD 전문 인력을 투입,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고 각 가정까지 UHD 신호를 송신했다. 이는 기존 UHD 생중계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특히 지상파방송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2018년 아시안게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셰이크 아흐마드 알 파하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아시아 각국의 VIP가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18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로 결정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대회기를 이양받았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으로 생중계됐다.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인천아시안게임 중 일부 경기를 4K UHD로 제작해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KBS는 배구 경기, MBC는 개·폐막식과 육상 경기, SBS는 비치발리볼 경기를 4K UHD로 실시간 송출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처음으로 모든 콘텐츠를 Full HD로 제작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Full HD 방송보다 4배 이상 선명한 4K UHD 방송도 구현해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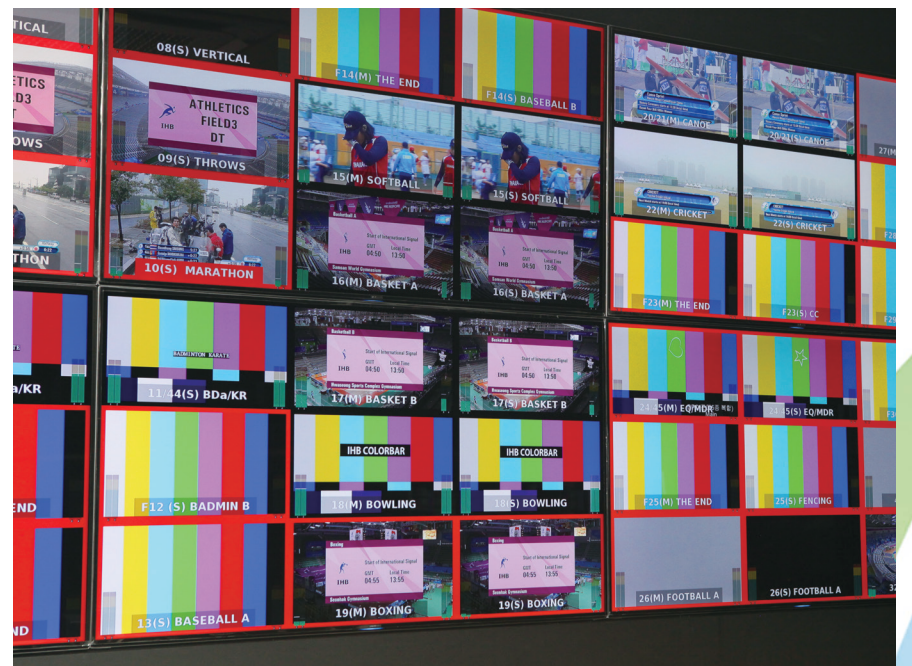
이번 아시안게임 4K UHD 방송은 2014 브라질월드컵 생중계 실험 방송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브라질월드컵 방송이 현장에서 제작된 UHD 방송 신호를 국내 방송이 받아서 보내준 것이라면 이번에는 각 방송국 인력들이 현장에서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가정까지 송신하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것으로 세계 최초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송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국산 장비를 대거 사용해 국내 방송 장비업체의 홍보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UHD TV는 물론이고 세계 최초 4K 60P 규격을 지원하는 ㈜비주얼리서치의 자막 시스템, ㈜티브이로직의 방송용 4K 모니터, 콤포스의 컴퓨터그래픽 장비 등이 사용됐다. 이외에 KBS는 썬멀티미디어와 개발한 국산 UHD 인코더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선보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의 국산 장비 열풍이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이어져 국산 방송 장비의 경쟁력 상승의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글 백선하 baek@kobeta.com
사진 이진범 jnb1001@kobeta.com



초고화질(UHD) 방송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인천아시안게임 중 일부를 초고화질(UHD) 방송으로 내보냈다. KBS의 경우 인천 현지의 UHD 방송센터에서 제작된 신호가 KBS 본사를 거쳐 남산과 관악산 송신소로 전송되고, 각 송신소에서는 SFN 기술을 적용해 채널 54번(70MHz~76MHz)을 통해 DVB-T2 방식으로 UHD 신호를 송신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UHD TV 보유 가구에서는 UHD 영상으로 아시안게임을 시청할 수 있었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방송의 이념과 원칙, 통합방송법 제정의 핵심

칼럼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책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 종합유선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지역밀착형 매체로 정의돼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방송 정책에 있어서도 종합유선방송은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대칭 규제 해소를 경제적 관점 차원, 예컨대 전국 권역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

두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적 환경은 두 방송 형태 간의 결합서비스를 출시해 OTS(Olleh TV SkyLife) 서비스 논쟁과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논쟁을 낳았다. 이 논쟁은 이중 유료 방송 간의 결합상품서비스가 합당한가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유료 방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IPTV와 위성방송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갔다는 점에 있다. 통합방송법의 시장점유율 규제 논의에 있어서 국내의 환경적 배경을 고려해 위성방송과 IPTV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논의는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법적인 정의와 운용 범위가 모호한 직사 채널의 문제, IPTV사업자, 위성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VOD 및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의 필요성도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방송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 이념과 통합의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이다. 이에 따라 논의의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방향성은 법적 정의의 개편 및 통합, 방송 및 방송서비스별 원칙의 형성-규제 체계의 일원화가 제시될 수 있다.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은 방송통신 수평 규제 체계 이행으로의 첫걸음이다. 법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용어의 정의이며, 통합 법제는 단순히 두 법에 있는 용어를 합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법적 정의의 통합은 향후 방통융합 법제를 대비하는 그리고 '방송통신 발전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방송통신의 개념과도 연결되는 장기적인 안목의 법적 정의의 개편 및 통합을 의미한다. 방송 및 방송서비스별 원칙의 형성은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논의돼 왔던 방송의 이념적 원칙, 정부·사업자·학계·시민단체 등이 논의해 왔던 쟁점사안들로부터 원칙을 형성해야 한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은 지상파방송만의 공적 이념이 규정돼야 하며, 유료 방송의 경우 공정 경쟁이라는 원칙하에 사업자별로 수행해야 하는 시청자에 대한 권의 보호 원칙이 수반돼야 한다.

통합방송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 이념과 통합의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이다.

이에 따라 논의의 방향성이

고려돼야 한다.

10월 7일부터 국감이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통합방송법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국감 이슈 토론회에서도 이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통합방송법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3월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방송법과 IPTV법의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번 규제 체계 정비의 핵심은 '유료 방송 규제 체계의 일원화'라는 것에 핵심이 맞춰지고 있는 다소 협소한 차원의 통합 법제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한 핵심 쟁점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진입 규제 논의인데, 핵심은 방송 사업 권역의 문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 사업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진행돼 왔던 규제 완화 흐름이 점차 77개 권역의 유의미성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누락돼 있다. 종합유선방송을 IPTV나 위성방송과 동일한 유료 방송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77개 권역의 지역 사업자로서 갖는 지역성 구현의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종합유선방송은 유료 방송 사업자 중 유일하게 지역 채널을 운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역 시청자

들과의 경쟁에서 결국 지역 시청자들을 단순한 ARPU(가입자당 매출액)의 수치로만 바라보거나, 다양한 디지털 상품의 구매자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각 유료 방송플랫폼이 가진 특성과 이들이 실현해야 하는 지역성과 공익성은 별도로 명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유 및 경영 규제의 문제로 핵심은 위성방송과 IPTV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 규제에 대한 방안 모색이다.

국내의 유료 방송 사업자 중에서 IPTV 사업자인 KT는 유일한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사설

지상파 UHD 표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회에 '지상파 UHD 송수신정합표준화' 안전이 재상정됐다. TTA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주 동안 서면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자본력으로 무장한 이동통신 3사가 여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재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TTA TTA는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총회에 올랐을 최종 표준안의 채택이나 탈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지난 7월 2일 TTA 총회 안전으로 올라간 지상파 UHD 표준을 부결시킨 것 역시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기술이 표준화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은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총회 전 단계, 분과위원회-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세 차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다가 최종 총회에서 갑자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국제 표준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급하게 표준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와 계열사들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전 세계 각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이 UHD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700MHz 대역 주파수를 빼앗

길까 우려한 이동통신사들이 지상파 UHD 표준 채택을 적극 방해한 행위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지상파 UHD 방송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자신들의 가입자 수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소모하고자 막대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UHD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해야” 지상파 UHD는 모든 국민에게 발전된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공공적이며, 공익적인 미디어 플랫폼의 가치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전 세계 방송 기술의 거대한 흐름도 UHD로 수렴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TTA 총회 부결로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시기는 또 다시 뒤로 밀렸다.

지상파 UHD 방송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TTA 총회에서도 부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시청자 복지와 방송 산업은 과거로 퇴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마지막 기회다. TTA는 이번에 재상정된 지상파 UHD 표준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만약 또 부결이라는 선택을 한다면 지상파 방송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의 확립과 시청자 복지를 위해서라도 방송의 기술 표준 채택을 더 이상 통신 사업자 중심의 TTA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TTA와 이동통신 3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이후삼
편집주간 | 이상의
편집위원 | 백낙운, 이승호, 안창준, 최권용, 나경록
취재기자 | 백선하, 객재옥,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기획실 | 강동균
인쇄인 | 성전&화성프린원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5층
전화 | 02-3219-5635
팩스 | 02-2647-6813
트위터 | @KOBETA_COM
홈페이지 | www.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5 / kobeta@naver.com

언론을 보는 맑은 창!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국내 최고의 미디어비평 전문 주간신문 미디어오늘에서 깊이 있고 빠른 미디어세계를 만나십시오.

구독신청 : 전화 02-2644-9944(미디어오늘 판매팀)
인터넷 : www.mediatoday.co.kr 정기구독신청 이메일 : help@mediatoday.co.kr
구독료 : 1년 5만원, 3년 13만원, 5년 20만원, 평생독자 100만원 (우편 및 택배 발송)
구독료 납부 : 지로 매월 20일경 지로용지 발송,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407501-01-002289 (예금주 : 미디어오늘)

언론의 속살을 보면 진실의 참모습이 보입니다.

Next!!

KOBASHOW 2015



25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2015.05.19-22
COEX, SEOULwww.kobashow.com

주 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이앤엑스

후 원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ufi
Approved
Event

산업통상자원부